

오르는 산은 오르지 않는 산보다 더 높다

이타적 유전자

손필영
시인



서울 용산에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다시 게양되었다. 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부터 6개월간의 혼란이 봉황기로 상징되는 국가수반의 공식임기 시작으로 정리되었다.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봉황기의 디자인은 자유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무궁화를 두 봉황이 위엄과 권위로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듯하다. 질서가 돌아온 듯 국민은 비로소 편안한 숨을 쉬는 것 같다. 우리는 모두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내고 새해를 어떻게 맞이했는지 어안이 병병하고 정신이 없었다. 무엇보다 갈라쳐진 국민 대립으로 혼란스러웠다. 우리는 '당신이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부분이고 내가 당신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나와 당신은 대한민국 앞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시작된 지금은 어떤 입장을 지지했던 이제는 모두가 더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박수를 받고 있다.

국회사전기자단·연합뉴스

어 지내야 한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시인 휘트먼(Walt Whitman)의 '열린길의 노래(Song of the Open Road)'를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인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열린 의식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두 발로 마음 가벼이 나는 열린 길로 나 선다/ 건강하고 자유롭게, 세상을 앞에 두

니/ 어딜 가든 긴 갈색 길이 내 앞에 뻗어 있다/ 더 이상 난 행운을 찾지 않으리. 내 자신이 행운이므로/ 더 이상 우는 소리를 내지 않고, 미루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방안의 불평도, 도서관도, 시비조의 비평도 집어치우려다/ 기운차고 만족스레 나는 열린 길로 여행한다./ 대지, 그것이면 족하다./ 별자리가 더 가까울 필요도 없

다./ 다들 제 자리에 잘 있으리라./ 그것들은 원하는 사람들에게 소용되면 그뿐 아니라.(하지만 난 즐거움 내 옛 짐을 마다하지 않는다/ 난 그들을 지고 간다, 남자와 여자를/ 난 그들을 어딜 가든 지고 간다./ 그 짐들을 벗어 버릴 수는 없으리./ 나는 그들로 채워져 있기에. 그리고 나도 그들을 채우기에.)

이 시를 보면 삶에 대한 순수하고 강한 열정이 솟아오른다. 어디를 가든 사람을 짊어지고 가는 시인처럼 사람을 향해서도 열려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가난과 고난 속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 그는 가난이 무엇인지 노동자의 삶이 무엇인지 사회적 불의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가난하더라도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아온 과거의 대통령들과는 다른 출발점을 지니리라 본다. 김현승 시인은 산을 이상(理想)으로 보면서 "오르는 산은/ 오르지 않는 산보다 더 높다"고 말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높은 산보다 내가 오른 산이 나에게 가장 높은 산이다. 에베레스트가 아무리 높아도 그 높이는 숫자이고 개념이므로 나에게서는 구체적으로

가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에베레스트를 8849m 높이의 숫자로 기억하지만 내겐 가보지 않은 에베레스트보다는 오르기 너무 힘든 산이었던 지리산이 가장 높은 산이다. 지리산을 오를 때 땀범벅에 숨이 차 힘 들었지만 새소리를 듣고 흘러가는 구름을 보는 기쁨을 만끽하기도 했고, 풀썩에 앉았다 일어나 보니 궁둥이에 풀물이 들거나 잎이 들러붙었던 경험이 훨씬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었다. 경험과 개념은 너무나 극명한 차이를 지닌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50대 후반의 사람 중에 어린 시절 가난하여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나?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소년공으로 성장한 이재명 대통령은 어두운 현실을 극단적으로 경험했을 것이다.

일찍이 황동규 시인은 고향의 존재는 우리가 되돌아가 다시 시작할 곳을 보여준다고 했다. 시를 쓰든 어떤 일을 하든 이것은 모두에게 적용될 것이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린 시절의 고향으로 돌아가 대통령직을 시작한다면 가장 낮은 자세로 주어진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시절의 가장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정신으로 사심 없이 국정 운영을 해줄 바란다.

민주주의는 누가 지키는가? 깨어있는 시민의 힘

기고

박이슬
문화평론가



민주주의는 단지 투표일에만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어떤 정당이 다수당이 되었느냐를 넘어, 우리의 삶 곳곳에 일상적으로 깃들여 있어야 할 '태도'이자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는 결코 스스로 유지되지 않는다. 때로는 퇴보하고, 때로는 무력하게 권력 앞에 흔들리기도 한다. 그럴때 더더욱 간절해지는 것은 바로 깨어있는 시민의 존재다.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하지

만, 현실 속 민주주의는 늘 모두의 것이 아니었다.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는 종종 지워졌고, 정책은 권력자나 소수 엘리트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곤 했다. 그런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불신을 낳고, 약자를 더욱 고립시킨다. 결국 민주주의가 제 역할을 하려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자'로서 깨어 있어야만 한다.

2014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세월호 참사는 이러한 시민의 각성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304명의 무고한 생명이 바다 속에서 희생되어가는 동안, 국가는 무능했고 무책임했다. 그러나 참사 이후를 바꾼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이었다. 유가족들의 간절한 외침에 공감하며 거리로 나온 사람들, 잊지 않겠다며 기억 공간을 지키고, 기록하고, 연대하던 이들이 만든 변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촛불을

들고 함께 서 있던 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통치받는 자'가 아니라 '묻고 따지고 행동하는 주체'로서의 자각을 시작했다. 그 질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왜, 누구를 위해,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시민 참여의 힘은 사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 깊은 유산으로 1980년 5월, 광주의 시민들은 계엄군의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날의 광주는 단지 저항의 도시가 아니었다. 질서를 지키고, 약탈을 막고, 연대하며 공동체를 지켜낸 시민 자치의 도시였다. 정의롭지 못한 권력에 맞서면서도 공동체의 윤리를 저버리지 않았던 그 정신은 지금까지도 살아 숨 쉬며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라

는 깨달음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확장은 오늘날 새로운 세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기후위기의 시대, 청소년들은 더 이상 관찰자나 보호받는 존재로 머물기를 거부한다.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로 대표되는 청소년 기후운동은 이제 한국에서도 '청소년 기후소송단'이라는 이름으로 현실 정치와 제도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이들은 탄소중립 목표 미이행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일상 속에서 실천과 교육, 정책 제안까지 주도하고 있다. 나이와 권한의 문제를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혹자는 민주주의는 거창한 정치적 구호나 선언이지 않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결론도 '아니다'. 때로는 마을 회의에서 쓰레기 문제를 토론하는 주민들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장애인 이동권을 외치며 도로 위에 앉은 이들의 행동 속에서, 때로는

익명의 시민이 공익 제보를 고민하며 써 내려간 편지 속에서 진짜 민주주의는 존재한다. 그 모든 작고도 소중한 참여들이 모일 때, 우리는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에 가까워진다.

깨어있는 시민은 완벽하거나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아이를 키우며 사회의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 아침 지하철에서 기후 뉴스를 읽는 청년, 마을의 나무 한 그루를 지키기 위해 동네 모임에 나오는 주민 이들 모두는 민주주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모두, 그저 평범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시민으로서, 민주주의라는 저수지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물음 하나일지 모른다. "나는 오늘, 공동체의 민주주의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묻고, 듣고, 행동하며, 서로를 연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민주주의라 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가 그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